

두 특정성 표지 ‘어떤’과 ‘한’에 대한 고찰

염재일*†

홍익대학교

Jae-Il Yeom. 2007. Two specificity markers *etten* and *han* in Korean. *Language and Information* 11.2, 23–47. In this paper I discuss two markers for specificity, *etten* and *han*, in Korean. First, I discuss their structural properties and claim that *etten* is a determiner, and *han* is a numeral preceded by an implicit existential quantifier. Then I discuss four uses of *etten* and two uses of *han*, and show when they are used as specificity markers. There are various properties of the two specificity markers, some of which they have in common. I take them as properties of specificity markers in general. The properties only one of them has are taken to come from the original meanings of the two morphemes. I claim that specific indefinites range over individual concepts, which lead to the properties they have in common. (Hongik University)

Key words: 특정성 (specificity), 어떤 (*etten*), 한 (*han*), 한정성 (definiteness), 개체개념 (individual concept), 인식적 접촉 (cognitive contact)

1. 서론

지금까지 다른 언어에서의 특정성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활발한 반면, 국어에서의 특정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국어에서의 특정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지만, 특정성을 지니는 다른 언어에서의 연구결과를 우리말에 적용해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 예를 들면, 목적격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특정성을 지닌다는 다른

* 121-791,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홍익대학교 영어영문학과. E-mail: jiyeom@hongik.ac.kr

† 본 논문은 독일 Humboldt 대학의 ZAS가 주최한 ‘Funny Indefinites — Different Kinds of Specificity across Languages’라는 주제를 위한 워크샵에서 발표된 논문의 일부를 확대 논의한 것이다. 세 익명의 논평자의 지적으로 논문의 오류가 고쳐졌고, 논지가 분명해지기도 하였다. 세 논평자에 감사한다. 한 논평자가 보다 자연스러운 예문을 위하여 대용량 코퍼스의 사용을 권하였지만 그 권고를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논문의 목적에 따라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코퍼스적 접근으로 좋은 통사적 고찰을 보여주는 특정성 표지에 대한 논문을 기대한다. 혹시 다른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이다.

¹ Enç (1991)과 Kornfilt (1997)에 의하면, 터키어에서 목적격이 실현되지 않은 부정명사구는 특정성/불특정성을 모두 보이지만, 목적격이 실현된 경우 특정성 명사구로만 해석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종속절에서 주어는 소유격으로 나타나는데, 격조사가 쓰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정성을 보인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Torrego Salcedo (1999) 등 몇몇 학자들은 Spanish에서도 명시적 격표시가 유생성 (animate) 명사구에 붙으면 특정성을 보인다는 것을 보였는데, 다른 학자들은 그 이외에 명사구의 특정성이 형용사 수식어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명사 앞에 형용사가 나타날 경우 특정성을 지닌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Picallo (1994), Jacob (2005) 등 참조.

언어(예를 들면, 터키어)에서의 관찰을 우리말에 적용해보는 시도(Kim, 1992; Lee, 2005 등)가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언어마다 특정성을 나타내는 방법이 다른 것이 이미 관찰되었고, 또한 특정성은 화맥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어서 초점이나 뒤섞이(scrambling) 등 정보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어떤 명사구를 특정적 혹은 불특정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성 표지라고 하면, 항상 특정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불특정성 명사구도 화맥에 따라서 특정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특정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화맥 혹은 정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성을 논의하면서 특정적 혹은 불특정적 해석을 직관에 의존하는수가 있는데, 특정성은 그 성격상 검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직관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다. 그 이유는 특정성 자체에 대한 범위와 정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성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면서 특정성에 대한 엄밀한 정의조차 힘들 정도로 특정성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언어마다 특정성을 나타내는 방식과 형태소적 특징이 다르고, 한 언어적 특성이 확립이 되면 그러한 언어적 특성을 지니는 다른 용법도 특정성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분구조(partitive constructions)이다. Enç (1991)는 터키어에서 대격을 받는 것이 특정성 명사의 특징이라는 것을 관찰하고 나서 부분구조도 대격을 가지면서 부분구조도 특정성을 지니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부분구조는 전통적인 개념의 특정성과는 종류가 다르다. 이런 점에서 별도의 취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 언어의 특정성을 연구하려면 그 언어 내에서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해당 언어에서의 특정성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알아내야 한다. 한두 문장이 임의의 기준에 의하여 (불)특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 특정성이 확대 해석됨에 따라 특정성을 유형화 하는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Farkas (1995), von Heusinger (2002)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주장되는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어떤 특정성 표지가 발견이 된다면 기존의 유형화에 수정을 가해야 하며, 근본적인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특정성에 대한 연구의 방향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특정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유형을 찾은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성을 엄밀하게 정의하고, 그것에 맞지 않는 것은 다른 현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문제는 어디까지를 특정성으로 간주할 것인가이다. 따라서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도 특정성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정성이 확립된 후에 어떤 현상을 특정성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특정성이라는 것은 이미 확립된 개념이며, 그 개념이 어떤 의미적 혹은 화용적 내용을 가지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국어에서 특정성 표지로 사용되는 두 형태소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고찰하고 기존의

논의에서의 특정성 표지들과의 차이를 밝힌 후, 특정성 명사구와 불특정성 명사구 사이의 선을 긋는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의미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어 두 특정성 표지 ‘어떤’과 ‘한’을 고찰 하고자 한다.

자연어에서 특정성을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정성만을 위한 표현을 가진 언어는 많지 않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해당 언어 내에서 어떤 표현을 특정성 표지로 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그 특정성 표지는 특정성의 전형적 특징 뿐만 아니라 원래 그 표현이 가지는 의미에 의존하는 특성도 가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특징들은 특정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수 있으며, 이것들은 특정성 연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성 표지의 특성 중에서 어떤 것이 특정성의 고유한 특성이고 어떤 것이 해당 표현의 원래 의미에서 오는 특성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두 특정성 표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공통점은 특정성 표지의 고유한 특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차이점은 해당 표지의 독특한 특성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두 특정성 표지의 용례를 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본인이 아는 한에서는 국어에서 특정성의 표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어떤’과 ‘한’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연구는 ‘어떤’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한’ 역시 특정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특정성은 어떤 기술(description)을 포함하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그 기술을 만족시키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청자가 정할 수는 없지만 화자 자신은 그 기술을 만족시키는 가능한 대상 중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마음속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Higginbotham (1987, 64)에서 논의한 것처럼 화자가 아닌 경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1) a. George: I met a certain student of mine.

b. James: George met a certain student of his.

George의 말을 James가 전하는 문장에서 특정성은 화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염두에 두는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들어 Yeom (1998)에서 특정성 명사구는 두 개의 변수를 도입하여 하나는 명사구 자체가 가리키는 대상을 값으로 갖고, 다른 하나는 그 대상을 염두에 두는 주체를 받는 것으로 분석을 한다. 여기서 후자는 화맥에 의하여 결속되며, 위에서는 어느 문장이든 George가 된다.² Farkas (1998)에 의하면, 영어에서의 a certain이 가장 전형적이고 제약이 많은 특정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특정성에서 인지의 주체를 화자에 국한할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² von Heusinger (2002)는 후자에 대하여, 결속지는 해당 문장 내에 있거나 화자이어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다. 이 주장이 맞다면 Yeom (1998)에서 말한 대로 특정성을 부여하는 주체도 선행사를 요하는 변수로 취급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좀더 일반화해서 특정성을 ‘화자 혹은 화맥에서 접근 가능한 어떤 주제에 의하여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기술 (description)을 통하여) 마음속으로 어떤 대상을 지목할 수 있는 것’을 특정성이라고 하고, 그를 표현할 수 있는 형식적 방법을 특정성 표지라고 할 수 있다.³ 여기서 지목한다는 것은 가리키는 대상을 정말 다른 사람과 구분해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 주체가 어떤 대상을 특정한 계기에 접할 기회가 있을 경우 그 대상에 대하여 다른 대상과 구분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이 특정한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 대상을 지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을 Yeom (1998)은 인지적 접촉 (cognitive contact)이라고 하였다.⁴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의미의 일부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만약 한 화자가 ‘철수가 어제 어떤 특정한 의사를 만났다’고 말을 하였는데, 그 만난 의사가 화자가 마음속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그 문장이 참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엇갈리는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특정성이 화용적인 특징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한편, 기술의 내용에 근거하여 청자가 유일한 대상을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한정성과 구분되는 것이다. 즉, 한정성 명사구의 경우 그 포함된 기술이 청자에게 어떤 유일한 대상을 지목해주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그러나 von Heusinger (2002)는 특정성과 한정성은 서로 대립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관찰은 Partee (1970)에서도 있었다. 한정성 명사구의 경우 가리키는 대상이 청자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를 한정적이지만 비특정적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위에서 정의한 특정성의 정의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자체에 의하여 유일한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나 화맥에서 접근 가능한 주체가 대상을 지목하는 것은 한정/비한정에 국한되지 않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특정성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념적 정의 등을 언급하였다. 이제 국어에서 ‘어떤’과 ‘한’이 어떻게 특정성 표지로 사용되는가를 보고 그들의 특성을 통하여 특정성을 새롭게 이해하고 정립하고자 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2) a. 철수는 여의사를 좋아한다.
 b. 철수는 어떤 / 한 여의사를 좋아한다.

³ 이러한 기술적 정의는 개념을 전달하기에는 좋지만, 언어학적인 실체는 아니다. 본 논문의 뒷부분에서 그에 해당하는 언어학적인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⁴ 이러한 면에서 Farkas (2002)의 *identifiability*는 옳지 않다고 할 수 있다. *cognitive contact*은 Quine (1956)의 예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Ralph라는 사람이 Ortcutt이라는 사람을 해변에서 보았을 때는 갈색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를 (얼굴은 못 보았지만) 간첩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기회에 머리가 반백인 남자를 만났는데, 그를 사회의 명사로 생각했는데 그 역시 Ortcutt이었다고 할 때, Ralph는 Ortcutt에 대하여 두 개의 다른 *cognitive contact*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쌍둥이에 대하여 각각의 *cognitive contact*를 가지면서 같은 사람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identifiability*는 특정성의 특성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이 두 문장에서 ‘좋아하다’는 개체층위의 (individual-level) 술어로 불특정성 부정명사구 (indefinite NP)가 오면 총칭성을 띄게 마련이다. 첫 문장에서 ‘여의사’는 일반적인 여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총칭적 명사로 이해된다. 그러나 둘째 문장에서의 ‘어떤/한 여의사’는 특정한 여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점에서 ‘어떤’이나 ‘한’은 특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개체층위 술어가 아니라도 특정성/불특정성의 구분은 생긴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 (3) a. 철수는 어제 의사를 만났다.
- b. 철수는 어제 어떤/한 의사를 만났다.

첫 예에서 의사는 총칭성을 띄지는 않지만 어떤 의사이든 철수가 어제 만난 의사가 있으면 그 문장은 참이라고 여겨진다.⁵ 반면에 둘째 문장은 철수가 어제 만난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어떤 조건이 있다. 화자는 어떤 특정한 의사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철수가 어떤 특정한 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어제 여러 의사를 만난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은 가능하며, 그 만난 의사들 중에 어떤 특정한 의사를 염두에 두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 의사를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 유일한 한 의사를 결정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 정보가 그 의사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일 수도 있지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 있었다는 정도의 정보일 수 있다.

특정성 명사구가 아니더라도 화용적인 요소에 의하여 ‘어떤’이나 ‘한’이 없더라도 상황적으로 특정성을 지닐 수 있다.

- (4) 철수는 영희가 소개한 의사를 만났다.

본 예에서 영희가 소개한 의사는 소개라는 사건이 특정한 사건이라는 상황적 근거에 입각해서 특정한 의사라고 간주하게 된다.⁶ 이것이 화용적인 요소에 의하여 특정성을

⁵ Kim (1992), Lee (2005) 등에서 명시적으로 목적격표지를 사용하면 특정성을 나타낼 수 있고 목적격 표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특정성 명사구를 만든다고 하면서, 명시적인 목적격 표지가 특정성 표지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특정성 표지는 그것을 사용할 경우 항상 특정성 명사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주장이다. 불특정성 명사구도 화맥의 도움으로 특정성 명사구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히려 목적격 표지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항상 불특정적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을 불특정성 표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경험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다음에 예에서 ‘어떤 학생’은 특정성 명사구라고 분석하여도 문제가 없다.

i 나는 내 학생 중 어떤 학생 보면, 내 학생시절이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목적격표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원래 목적격 표지는 문체 등 언어외적인 요소들이 개입하는 현상이며 특정성과는 관계가 없다.

⁶ 여기서 목적격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특정성과 관련이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 목적격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특정성을 가질 수 있다.

(i) 철수는 영희가 소개한 의사 만나고, 영수는 숙희가 소개한 의사 만났어.

이 문장에서 ‘영희가 소개한 의사’와 ‘숙희가 소개한 의사’는 목적격 표지가 없지만 특정한 의사를 가리킬 수 있다. 목적격 표지와 특정성이 관련이 없다는 것은 Lee (1993) 등에서 지적이 되었다.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명사구에서 수식어가 길어지면 특정성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찰되어 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화용적인 요소가 초점이 아니므로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한다.

위 두 예를 통하여 ‘어떤’이나 ‘한’이 붙는 명사구가 특정성 명사구가 됨을 보였다. 개념적 정의에 입각한 직관적 고찰에 의존하여 설명하였는데, 이것만으로는 특정성의 특성을 규명하기는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특정성 명사구와 비특정성 명사구의 차이점 등을 통하여 특정성 명사구의 특징을 규명하고 특정성에 대한 기존의 주장을 재고하고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어떤’과 ‘한’의 여러 가지 용법

2.1 ‘어떤’의 용법과 의미·통사적 특징

‘어떤’의 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어떤’은 의문문에서 의문사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서술문에서 존재양화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어떤’에 의하여 도입되는 변수가 특성(property)을 나타낼 수도 있고, 개체(individual)를 값으로 가질 수도 있다.

- (5) a. A: 철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 B: 매운 음식을 좋아해.
 b. A: 철수는 우리 반 여학생 중에서 어떤 여학생을 좋아하냐? B: 그 눈이 크고 머리가 긴 여학생을 좋아해.
 c. 철수는 어떤 통신기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기기를 개발하기에는 기술수준이 미흡하다.
 d. 철수는 어떤 여학생을 찾고 있었지만, 그 여학생은 그 곳에 없었다.

첫 두 예문은 의문문으로 ‘어떤’은 의문문을 만드는 연산자에 의하여 결속된다. 반면에 나머지 두 예문에서는 존재양화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와 셋째 예문에서 ‘어떤’은 특성을 묻거나 어떤 특성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두 예에서는 ‘어떤’이 개체를 값으로 가지므로, 특정한 여학생을 묻거나 특정한 여학생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문장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에서 논의하는 특정성을 나타내는 것은 네 번째 예문과 같이 사용되는 ‘어떤’의 용법을 말한다.

‘어떤’ 뒤에 수식어가 나타나는 경우 위의 네 가지 용법 중에서 의문문 연산자에 결속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⁷

- (6) a. ??철수는 어떤 매운 음식을 좋아하냐?

⁷ 만약 ‘어떤’이 수식어 앞에 쓰이면서 의문사로 쓰인다면, 그 경우 수식어와 명사는 합하여 어떤 종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6a)가 자연스럽게 느껴지려면, ‘매운 음식’이 하나의 합성어처럼 간주되는 것이다.

b. ??철수는 어떤 똑똑한 학생을 좋아하나?

그리고, ‘어떤’ 뒤에 수식어가 있는 경우 다음의 예문에서 보듯이 특성을 가리키지 않고 개체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다.

(7) ??철수는 어떤 똑똑한 아가씨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타입의 여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예에서 ‘어떤 똑똑한 여자’가 ‘키가 큰 똑똑한 여자’나 ‘이쁘고 똑똑한 여자’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여자 중에 어떤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을 ‘어떤 타입으로 이해하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어떤’ 뒤에 관형어구가 수식어로 오면, ‘어떤’은 개체만을 값으로 가지게 되며, 이것이 특정성 표지로 쓰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어떤’의 통사적인 특성을 고찰하면 결정사(determiner)적 성격을 지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어에서 결정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일단 편의상 결정사라고 지칭하겠다.⁸ 일반적으로 결정사는 수량사와 성상사에 선행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⁹

(8) a. 그 (두) (헌) 신발

b. *그 헌 두 신발

c. *두/헌 그 신발

결정사의 위치는 수량사나 성상사보다 선행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성상사가 아닌 동사구나 절의 형태의 관형구와의 순서가 아주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임홍빈 (1987, 1998), 강명운 (2001) 참조.

(9) a. [굽이 높은] 그 두 헌 신발

b. 그 [굽이 높은] 두 헌 신발

c. 그 두 [굽이 높은] 헌 신발

d. *그 두 헌 [굽이 높은] 신발

⁸ 강명운 (2001)에서 ‘그’를 결정사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다.

⁹ 여기서 성상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새’ 같은 것이다. 의미적으로 ‘새롭(다)’와 관계가 있지만, ‘새로운’과는 다른 것이다. ‘헌’이 ‘헐(다)’에서 온 것으로 간주되지만, 의미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어떤 것이 왜 성상사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곳은 아니므로 임홍빈 (1987, 1998) 등의 분석을 따른다. 한 논평자가 제기한 ‘짧은’은 성상사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짧은’은 ‘짧(다)’의 관형형 어미가 붙은 동사구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성상사 바로 뒤자리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자유롭게 관형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국어에서 결정사의 고정된 위치를 가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량사나 성상사와의 위치가 고정적이라는 점에서 결정사의 위치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가정이 어렵지는 않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도 이와 같은 결정사의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¹⁰

- (10) a. 어떤 두 현 신발
 b. *어떤 현 두 신발
 c. *두/현 어떤 신발
- (11) a. [굽이 높은] 어떤 두 현 신발
 b. 어떤 [굽이 높은] 두 현 신발
 c. 어떤 두 [굽이 높은] 현 신발
 d. *어떤 두 현 [굽이 높은] 신발

이와 같이 ‘어떤’이 ‘그’와 같은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임홍빈 (1998)에서 ‘어떤’은 ‘어느’, ‘무슨’, ‘어떠한’ 등과 함께 준지시사로 간주하고 있다. 그 근거로 주 (54)에서 ‘그 어떤 사람’, ‘이 무슨 꼴’, ‘그 어느 사람’ 등과 같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에서 ‘그’가 지시의 의미를 가지는 결정사인지 분명하지 않다.

- (12) a. 철수는 그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

¹⁰ 한 논평자는 ‘어떤’이 동사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어떻(다)’의 동사굴절이 대체로 빈틈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것은 국어를 아는 사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어떤’을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어떻(다)’에서 온 것일 뿐, 그 이상이 아니라면, 항상 특성을 값으로 가져야 하는데, 본 논문의 초점이 되고 있는 ‘어떤’은 특성이 아니라 개체를 값으로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미가 다른 것을 의미하며, ‘어떻(다)’와 거리를 두는 것이다. 비교를 위하여 ‘이/이런’이나 ‘저/저런’의 차이와 병행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혹은 ‘저런’은 ‘이렇(다)’ 혹은 ‘저렇(다)’에서 왔다고 할 수 있으며, 특성을 값으로 가지나 개체를 값으로 가지지는 않는다. 개체를 가리키기 위해서는 ‘이’ 혹은 ‘저’ 등을 사용한다. 반면에 ‘어떤’은 한 형태로 특성을 값으로 가지기도 하고 개체를 값으로 가지기도 한다. 당연한 질문은 왜 개체를 나타내는 형태가 따로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특성으로부터 개체로의 의미적 변화가 같은 부류의 형태소에서 일어나는 체계적인 변화가 아니고 특정 형태소에만 나타난 것이라면, 그 의미적 변화는 별도의 형태소의 생성으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본 질문에 대한 논평자의 의견이 궁금해진다. 논평자는 이어서 ‘어떤’이 ‘어떻(다)’에서 왔다고 하면 ‘어떤’이 의문사적 특성과 존재사적 특성을 동시에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하였는데, 동사만이 그런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런 주장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왜냐하면, 동사가 아니면서 그런 이중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은 동사가 아니면 의문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인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요한 사실은 의문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비선택적 결속을 허용하는데, 그러면서도 특정성 표지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b. 그 어떤 사람이 철수를 찾아왔다.

첫 예에서 ‘그’는 더 이상 지시사로 보기가 어렵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는다. 이 문장이 보이듯이 항상 ‘도’가 따라오고 부정문에 쓰인다. 그리고, 둘째 예에서 그 문장은 일반적으로 비문법적이고 혹시라도 문법적인 문장으로 이해하려면 ‘어떤 사람’이 초언어적 (metalinguistic)으로 해석되어, 앞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누군가를 가리키며 사용하였을 때, 그 누군가를 가리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은 따옴표 속에 들어갈 만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의미적으로도 ‘그’가 지시사로 [+definite]의 특성을 지닌다면 [-definite]인 ‘어떤’과는 어울릴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지시사는 ‘어떤’과 어울리지 않는다.

(13) *이/저 어떤 사람

따라서 ‘그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의 존재가 ‘어떤’의 준지시사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¹¹ 따라서 ‘그 어떤’은 의미적 합성이 불가능하므로 고정된 표현으로 부정극어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떤’을 결정사로 간주하는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할 수 있다.¹²

그리고 관형구가 비교적 자유로운 분포를 보인다는 것이 ‘그’ 등을 결정사로 간주하기를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러나 관형구가 결정사 앞에 오는 것과 뒤에 오는 것에는 의미적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두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가정하자. 한 남자는 젊고 평범하게 생겼고 회사원이고, 다른 남자는 나이가 좀 들었지만 아주 미남형의 변호사라고 가정하자.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발화를 한다고 가정하자.

- (14) a. 영희는 그 평범하게 생긴 젊은 남자를 더 좋아한다.
- b. 영희는 평범하게 생긴 그 젊은 남자를 더 좋아한다.
- c. ??영희는 평범하게 생긴 젊은 그 남자를 더 좋아한다.
- d. 영희는 평범하게 생긴 젊은 그 회사를 더 좋아한다.

여기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분이 비교 대상 중에 유일하게 한 개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그’ 앞에 오는 관형구는 비제한적이고 뒤에 오는 것은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관형어의 위치가 정해져 있지는

¹¹ 그렇다면, ‘이 무슨 꼴’이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면 아주 이상한 일일 것이다. 이 표현에서 사실은 ‘이’가 명사구에 속한다기 보다는 별도의 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임흥빈 (1998)에서 이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것은 ‘이게 무슨 꼴 (이나)’ 등의 표현을 줄인 것으로 이해된다.

¹² 윤중열 (2001)에서는 영어에서의 특정성 부정명사구를 DP로 분석하고 불특정성 명사구는 NP로 분석하고 있는데, 국어에서도 ‘그’를 결정사로 분석한다면, 특정명사구를 형성하는 ‘어떤’을 결정사로 분석하는 것이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않지만, 그것의 해석은 ‘그’의 위치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그’가 고정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를 결정사로서 결정사구를 이룬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마련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거를 직접적으로 ‘어떤’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에서 ‘그’와 ‘어떤’이 같은 위치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였고, ‘그’가 결정사의 위치를 차지한다면 ‘어떤’도 통사적 범주가 동일한 것이므로 ‘어떤’도 결정사라고 간주할 수 있다.

2.2 ‘한’의 용법과 의미·통사적 특징

‘한’은 크게 두 가지 용법이 있다. 하나는 순수 수량사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서 논의하는 특성성 표지이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국어에서 수량사가 쓰이는 구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¹³

- (15) a. (그) 연필(들)
 b. (그) *(열) 자루
 c. (그) 열 자루의 연필
 d. (그) 연필*의 열 자루
 e. (그) 짧은 연필(들)
 f. *(그) 열 짧은 자루
 g. *(그) 열 연필

이 구조를 보면 ‘연필’이나 ‘자루’ 모두 명사구의 핵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단위명사의 경우 (15b)에서 수량사와 함께 쓰여야 한다는 것과 (15d)처럼 명사구 내의 다른 명사구에 속격을 주지 않는 것과, (15f)에서 처럼 관형어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다. 반면에 일반 명사는 (15g)에서 처럼 앞에 일반적으로 수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일반명사 앞에 수량사가 올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수량사가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숫자가 작은 경우 (‘한’, ‘두’, ‘세’, ‘네’ 등) 일반명사 앞에 올 수 있다.

- (16) a. 두/*?열 남자, 두/*열 신사, 두/*열 변호사
 b. 한 남자, 한 신사, 한 변호사

¹³ 수량사와 성상사 등의 어순에 대한 제약은 강명운 (2001), 임홍빈 (1987, 1998), 남지순 (2006) 등에서 논의되었다.

그리고, 수량사가 일반명사 앞에 오는 경우, 수량사 다음에 휴지 (pause)가 있을 수 있으나, 단위명사 앞에 오는 경우, 수량사 다음에 휴지가 없다. 이러한 구분은 ‘한’에도 적용이 된다. 이러한 차이를 일부 수량사의 어휘적 중의성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구조적인 중의성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¹⁴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중의성으로 파악한다면, 모든 수량사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어휘적 중의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어느 쪽을 가정하지는 않겠다.

숫자가 적은 일반명사 앞에 음으로써 특정한 개체 (들)을 가리키게 되는데, 이것은 적은 숫자의 경우 개체화(individuation)가 가능하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개체화란 대상이 되는 개체 (들)을 다른 개체들과 구분해주는 어떤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것이 확인가능성 (identifiability)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앞에서 말한 인식적 접촉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성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숫자가 작을 경우 개체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숫자가 커질 경우, 단순히 수량만 나타낼 뿐, 그 대상들에 대하여 개체화를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숫자의 크기가 문법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작은 숫자가 개체화를 용이하게 한다면, ‘한’이 일반 명사 앞에 쓰이는 경우 바로 이러한 용법과 관련이 있다. 즉, ‘한’이 단위명사 앞에 쓰이는 경우, 단순히 수량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전체 명사구가 부정명사구라면 불특정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한’이 일반 명사 앞에 쓰이면 특정성을 띄게 된다.

그러나 ‘한’은 다른 수량사와 달리 항상 부정명사구를 형성한다. 다음의 두 예를 비교하면 알 수 있다.

(17) 두 명의 숙녀가 로비에 들어왔다. 두 숙녀는 주변을 두리번 거렸다.

(18) ??한 명의 숙녀가 로비에 들어왔다. 한 숙녀는 주변을 두리번 거렸다.

첫 예에서 ‘두 숙녀’는 앞에서 소개된 숙녀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둘째 예에서 ‘한 숙녀’는 앞 문장에서 소개된 숙녀를 가리키지 않는다. 즉, 일반명사 앞에 쓰이는 다른 숫자는 한정적으로도 쓰이나, ‘한’은 항상 부정명사구를 만들며 특정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전형적인 단위명사이거나 전형적인 일반 명사로 쓰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떤 명사들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19) a. 열 사람

¹⁴ 숫자가 큰 경우에도 일반명사 앞에 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명사가 단위명사로 쓰이는 예로 볼 수 있다.

(i) 똑똑한 딸 하나 가진 사람은 열 아들 안 부럽다.

이와 같은 경우 ‘아들’은 단위명사처럼 사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b. 40세 이상의 성인 열 사람

(20) a. 건강한 사람

b. ??열 건강한 사람

첫 두 예를 보면, ‘사람’이 단위명사처럼 행동하지만, 끝 두 예를 보면, 일반 명사처럼 행동을 한다. 따라서 ‘한’을 붙인 경우 확실하게 특정성을 가지게 하는 방법은 명사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다. 수식어는 일반 명사에만 붙으므로 수식어를 붙임으로서 일반 명사만 나오게 할 수 있고, 따라서 일반 명사에 ‘한’을 붙이면, 결국 특정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어떤’에서도 수식어를 붙이면 특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는데, 이유는 다르지만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

단위명사와 일반 명사의 구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21) a. 우리는 한 차가 필요하다.

b. 우리는 한 검은색 차가 필요하다.

첫 문장에서 ‘한 차’는 차 한 대 분량의 어떤 물건을 말할 수도 있고 어렵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한 차를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러나 둘째 문장에서는 항상 어떤 특정한 차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인다. ‘검은색’이라는 수식어가 옴으로써 단위명사의 용법을 차단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 것이다.¹⁵

지금까지 ‘어떤’과 ‘한’의 여러 용법과 그것들이 특정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될 때의 통사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앞에서 특정성의 정의를 한 바 있으나 이는 단지 직관적인 특성을 포착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고 특정성을 지니는 명사구와 비특정성을 지니는 명사구의 특징적인 비교를 하지 않았다. 다음 절에서는 이를 비교함으로써 위 두 특정성 표지가 진정으로 특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¹⁵ 한 논평자는 위 두 문장이 특정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 만약 특정적인 명사구로 이해되지 않는다면 다음의 담화가 어색하여야 한다.

(i) 우리는 한 (검은색) 차가 필요한데, 그 차를 지금 철수가 가지고 있다.

만약 화자가 어떤 특수한 차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상황에서 위 문장이 발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만약 아래와 같은 문장이 가능하다면, ‘검은색 차’가 하나의 단위명사처럼 전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ii) 우리가 한 (검은색) 차가 필요해서 철수가 한 대를 어디서 구해왔다.

그러나, 만약 이 문장이 자연스럽다면, 다음의 문장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기대된다.

(iii) ??철수는 한 검은색 차가 필요하고, 영희는 두 검은색 차가 필요하다.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는 ‘검은색 차’가 하나의 단위명사처럼 사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이 문장이 부자연스럽고 (ii)가 자연스럽다면 이 둘을 설명하는 것은 숙제로 남게 된다. 본 저자에게 (ii)는 (iii)에 비해서 좋은 문장으로 생각되지만 약간 어법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일상적으로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다보면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요즈음 ‘너무 예쁘다’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전에는 어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어색한 표현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어법에 맞지 않지만, 어색하지는 않다. (ii)가 그러한 경우로 생각된다.

3. 특정성 명사구의 특징과 ‘어떤’/‘한’의 특정성

특정성 명사구의 특징은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화용적인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다. 화용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응현상을 들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22) ??철수는 논문 한 편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 논문을 빌려 주기로 했다.

(23) 철수는 어떤/한 논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 논문을 빌려 주기로 했다.

이 두 문장은 첫 문장에 불특정성 명사구와 특정성 명사구를 사용한 것이다. 동사 ‘필요하다’는 목적어 자리에 지시적 불투명 (referentially opaque) 상황을 가져오는데, 이 때에 불특정성 명사구 ‘논문 한 편’은 뒤에 오는 문장에서 ‘그 논문’으로 해당 논문을 가리킬 수 없지만, 특정성 명사구 ‘한 논문’은 뒤에서 그 해당 논문을 가리킬 수 있다. 이것은 의미적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두 예는 특정성 명사구와 불특정성 명사구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24) 철수는 논문 한 편을 읽었다. 그 논문은 길이가 길다.

(25) 철수는 어떤/한 논문을 읽었다. 그 논문은 길이가 길다.

이 두 문장 모두 ‘그 논문’은 앞 문장에서 소개된 논문을 가리킨다. 첫 예에서 ‘그 논문’이 앞 문장에서의 ‘논문 한 편’을 가리키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은, 철수가 논문 한 편을 읽었다고 할 경우 의미적으로는 그 표현이 양화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지시적 기능이 없지만, 철수가 논문 한 편을 읽었다면, 읽은 논문이 한 편 있기 때문에 그 논문을 가리킬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에 ‘한 논문’은 지시적 불투명 상황이든 아니든, 독자적인 지시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쓰이든지 담화상에서 가리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화용적 간섭을 배제하고 언어적으로 특정성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용적인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관찰을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불투명 명사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가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화용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은 믿음상황 (belief context) 이다. 믿음상황 역시 지시적 불투명성을 보이는 환경이다. 이 상황에서 특정성 명사구와 불특정성 명사구의 차이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6) a. ??영희는 철수가 논문 한 편을 읽었다고 생각한다. 그 논문은 길이가 매우 길다.

- b. 영화는 철수가 어떤 / 한 논문을 읽었다고 생각한다. 그 논문은 길이가 매우 길다.

첫 예에서 ‘그 논문’은 앞의 ‘논문 한 편’을 가리킬 수 없지만, 둘째 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단순히 영역(scope)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27) 영화는 어떤 / 한 남자가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여자였다.

여기서 ‘그것’은 앞의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 한 남자’가 광영역(wide scope)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자라고 하면 둘째 문장과 상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 한 남자’는 협영역(narrow scope)를 가진다고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상황에서 믿음상황의 부정명사구를 가리킬 수 있다. 이것은 특정성의 명사구에 대한 독특한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특정성 명사구는 소망상황(desire context)의 영역에는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 (28) 철수는 책 한권을 읽고 싶다. 그러나 철수는 읽을 만한 책이 없다고 생각한다.

- (29) ??철수는 어떤 / 한 책을 읽고 싶어한다. 그러나 철수는 읽을 만한 책이 없다고 생각한다.

첫 예에서 철수가 책을 한 권 읽고 싶다고 하여도 어떤 특정한 책의 존재를 믿을 필요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철수가 책을 읽고 싶다고 하여도 읽을 만한 좋은 책이 철수의 믿음상황에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반면에 철수가 어떤 특정한 책을 읽고 싶다면, 그 책의 존재를 철수 자신이 믿어야 한다. 둘째 예가 이상한 것은 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Heim (1992)에 의하면, 소망상황은 믿음상황의 부분집합이라고 주장한다. 즉, 한편으로는 믿음과 합치되는 세계 가운데 가능한 것만 소망을 할 수 있으므로 믿음과 합치되는 세계 가운데서 소망의 내용과 합치되는 세계는 일부가 된다는 것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이미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소망할 수 없으므로 모든 믿음세계에서 참이면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특정성 명사구의 특징은 아무리 소망상황에 쓰이더라도 믿음상황에 이미 존재가 확립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특정성이라는 것이 존재의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되지 않는 것도 설명할 수 있다.

- (30) ??{어떤 / 한} 재미있는 책은 없다.

‘어떤’ 혹은 ‘한’을 사용하는 것은 화자가 재미있는 책의 존재를 믿어야 하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모순과 같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와 같은 문장들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장들은 ‘어떤’과 ‘한’의 사용이 문법적인 판단이 가른다.

(31) a. 어떤 재미있는 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b. ??한 재미있는 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첫 예는 ‘어떤 재미있는 책’이라는 것은 화자가 그러한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믿는 혹은 믿을 법한 그러한 재미있는 책이며 그러한 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둘째 예는 그러한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한’의 경우 화자지향적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항상 화자가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살펴볼 수 있다.

(32) 철수는 어떤 재미있는 책을 읽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재미있는 책이 있는지 모르겠다.

(33) ?철수는 한 재미있는 책을 읽고 싶어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재미있는 책이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서 ‘한’을 사용하는 경우 철수가 아닌 화자가 그러한 책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 같다. 따라서 화자 자신이 그러한 책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어색하다. 그러나 ‘어떤’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책의 존재는 철수가 가정한다고 할 수 있고, 화자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 둘의 공통점은 누군가가 해당 책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단지 ‘어떤’은 전제의 주체가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쉽게 되지만, ‘한’은 화자가 전제의 주체가 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둘 다 누군가의 믿음상황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면, 특정성 명사구는 지시적으로 투명한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정성 명사구가 지시적 표현(referential expression)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 지시적 표현 중에서 상상의 동물이라든지 가상의 존재를 가리키는 명사의 경우, 사람들의 믿음의 세계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믿음동사보다 협영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정성 명사구의 경우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시적 표현의 특성을 보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지시적 표현이라면 가질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성이 ‘어떤’과 ‘한’으로 시작하는 특정성 명사구는 양화사보다 협영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34) 여기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어떤/한 희귀한 동물을 연구한다.

이 문장에서 특정성명사구가 전칭양화사보다 광영역을 가질 수도 있지만, 협영역을 가질 수도 있다. 즉, 각각의 학자들이 연구하는 희귀 동물들이 다를 수 있다. 이것은 다음의 문장과 대조된다.

(35) 여기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검은토끼박쥐를 연구한다.

여기서 ‘검은토끼박쥐’라는 고유명사는 항상 광영역을 가진다는 점에서 위의 특정성 명사구와 비교된다.

또한, 특정성명사구가 지시적 표현이라면 조건문의 선행절에 쓰였다라도 주상황이 영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떤’과 ‘한’을 포함하는 특정성 명사구는 협영역을 가질 수 있다.

(36) 내가 혹시 어떤 / 한 어려운 논문을 읽게 되면, 철수에게 도움을 청해라.

이 예문에서 ‘어떤 / 한 어려운 논문’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은 그 부정명사구의 영역이 조건문의 선행절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특정성 명사구는 영역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양화사 뿐만 아니라, 믿음상황에 대한 협영역을 가지거나, 조건문에서 협영역을 가지는 등, 지시적 표현이 가지는 특징과는 거리가 있다. 기존의 주장 중에서 특정성 명사구를 지시적 표현으로 간주하는 분석으로는 ‘어떤’ 혹은 ‘한’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없다.

4. ‘어떤’과 ‘한’의 차이점

지금까지, ‘어떤’과 ‘한’을 같이 특정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취급하였으나, 이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어떤’은 ‘한’과는 달리 비선택적 결속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37) a. 철수는 자기 학교에 어떤 / ?? 한 선생님을 만나든지, 인사를 잘 한다.

b. 철수는 어떤 / ?? 한 젊은 여자를 만나든지, 데이트를 신청한다.

이 두 예에서 ‘어떤’을 포함하는 명사구는 ‘-든지’라는 비선택적 결속자에 의하여 결속되지만, ‘한’은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한’은 독립적인 결속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즉, ‘한’은 수량사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앞에 보이지 않는 결정자가 있어서 외부로부터 다른 연산자가 결속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선택적 결속을 허용하는 명사구는 총칭 연산자에 결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떤’을 포함하는 특정성 명사구는 총칭 연산자에 결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한다. 그러나 총칭 연산자에는 결속되지 않는다.

(38) 어떤 / 한 잘 생긴 청년은 여자에게 친절하다.

이 문장에서 총칭 연산자는 ‘어떤 / 한 잘 생긴 청년’을 결속하지 않는다. 만약 총칭 연산자가 이 명사구들을 결속한다면, 문장은 일반적으로 잘 생긴 청년은 모든 여자에게 친절하다는 의미가 되어야 하지만, 위 문장은 항상 어떤 특정한 청년의 특성을 말하고 있다. 특히, ‘어떤’으로 시작하는 명사구가 결속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비선택적으로 결속되는 특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또 다른 차이는, ‘어떤’을 사용하는 경우 그 배경에 많은 대체항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게 되지만, ‘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음의 예를 비교해보자.

- (39) a. 어떤 학생은 수영을 하고, 어떤 학생은 축구를 하였다.
- b. 한 학생은 수영을 하고, 한 학생은 축구를 하였다.

첫째 문장에서는 화자가 많은 학생을 가정하고 있지만, 둘째 예문에서는 두 명의 학생만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다른 차이들은 일부 앞에서 언급하였다. (31)에서 ‘어떤’을 포함하는 명사구에 의해 도입되는 사물의 존재는 부정이 되지만, ‘한’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한’은 화자가 생각하는 특정 사물을 가리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은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두 특정성 표지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40)	어떤	한
불투명상황넘은 조용현상	✓	✓
소망상황보다 광영역 가짐	✓	✓
화자지향적		✓
양화사보다 협영역 가능	✓	✓
조건절보다 협영역 가능	✓	✓
비선택적 결속	✓	
충칭연산자 결속		
대체항 다수	✓	

이들 특성 중에서 비특정성 명사구가 보이지 않는 특성들을 정리하면, 이것들이 특정성 명사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불투명상황을 넘어서 조용현상을 보이는 것은 비특정성 명사구가 보이지 않는 특성이므로 특정성 명사구의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소망상황에는 머물지 않는 특성 역시 비특정성 명사구는 보이지 않는 특성이다. 그리고, 양화사보다 협영역을 가지는 것과 조건절보다 협영역을 가지는 것은 특정성 명사구가 엄격지시자(rigid designator)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어떤’이 있는 명사구가 특정성을 지니는 데도 불구하고 비선택적 결속을 보인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칭연산자에는 결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특정성의 의미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5. 두 특정성 표지의 분석

5.1 두 특정성 표지의 차이에 대한 설명

위에서 ‘어떤’과 ‘한’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일반적으로 특정성 표지로 사용되는 것들은 원래 다른 용법을 가지는 것 중에서 어떤 의미적 요소 때문에 특정성 표지로 전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특성들은 원래의 용법에 기인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차이점들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어떤’은 어떤 특성의 존재를 나타내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자.

(41) A: 철수는 어떤 여자를 만났나?

B: 아주 예쁘고 귀여운 여자를 만났다.

이 예에서 ‘어떤’은 어떤 특성을 값으로 취하는 변수를 도입한다. 따라서 해당 의문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2) $\{p \mid \exists P[p = \exists x[P(x) \ \& \ \text{여자}(x) \ \& \ \text{만났다}(\text{철수},x)]]\}$

여기서 ‘어떤’은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P를 도입을 하겠지만, 철수가 만나는 것은 특성이 아니라 그 특성을 가진 개체이므로 개체에 대한 변수도 나타나야 하며, 이 변수를 존재양화사가 결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문에서도 만약 ‘어떤’이 특성을 값으로 가질 경우 마찬가지로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43) 철수는 어떤 여자를 만났다고 말했다.

(44) 말했다(철수, $\exists P \exists x[P(x) \ \& \ \text{여자}(x) \ \& \ \text{만났다}(\text{철수},x)]$)

만약 여기서 ‘어떤’이 특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체를 가리킨다고 하여도 정말로, ‘어떤’의 의미가 변했다기 보다는, 어떤 특성이 특정한 한 개체를 유일하게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어떤’이 일반적으로 특성만을 가리킬 때는 그런 특성을 가진 개체가 많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 P는 일반적인 특성을 값으로 가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이 어떤 특정한 개체를 가리킬 때는 ‘어떤’이 값으로 가질 수 있는 특성은 유일하게 한 개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화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그 개체에 대하여 경험한 어떤 특성을 가리킬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어떤’의 의미가 특성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특성이 있다는 존재양화사적 특성을 원래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어떤’이 존재양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의문연산자에 의하여 결속되어 의문사처럼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은 원래 양화의 특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상위에 있

는 연산자에 의하여 결속될 수 있으며, 결속되지 않을 경우 존재양화마감(Existential Closure)에 의하여 존재양화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한’은 원래 수량사로서 모든 수량사는 그것이 술어의 일부로 쓰이지 않는 한, 존재양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Krifka (1999)는 수량사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45) 수량사 n의 의미: $\lambda P \lambda x [\#(x) = n \ \& \ P(x)]$

수량사 자체가 존재양화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나, 영어에서 수량어 앞에 결정사 자리에 보이지 않는 존재양화의 결정사가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Geurts (2005)는 위의 의미를 수량사가 술어에 쓰일 때의 의미로 간주하고, 수량사가 논항으로 사용될 때는 다른 명사구와 같이 존재양화마감을 통한 유형변환(type-shifting)이 일어나 존재양화사로 쓰이게 된다고 설명한다.

(46) Existential Closure:

$\lambda x [\text{visitor}(x)] \Rightarrow \lambda P \exists x [\text{visitor}(x) \ \& \ P(x)]$

어떤 식이든지, 이는 모두 수량사가 항상 존재양화사로 쓰이는 것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한’이 특정성 표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수량사의 의미에 더해지는 것이므로 존재양화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두 특정성 표지의 기본적인 의미를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두 특정성 표지의 차이점을 설명하기로 한다. 우선, ‘한’이 비선택적으로 결속되지 않는 것은 수량어들이 독립적으로 가지는 존재양화적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적인 양화사는 그 자체가 연산자가 되어야 하며, 다른 연산자에 의하여 결속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비선택적 결속자인 ‘든지’ 등에 결속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은 앞에서도 논의하였지만, 의문사로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독립된 양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위의 연산자에 의하여 결속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비선택적 결속자에 의하여 결속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어떤’의 경우 다른 많은 개체들의 존재를 가정하게 하지만, ‘한’은 그렇지 않다. 이것도 ‘한’이 수량어라는 것에서 온다고 할 수 있다. 수량어들은 척도성(scalarity)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개체가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하여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한’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이며, 다른 개체는 없다는 것을 함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한’을 사용하면 유일하게 하나의 개체만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다른 개체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은 본래 특성에 대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특성을 통하여 특정 개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 특성을 가지지 않은 다른 개체들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이 존재양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이를 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직접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영어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설명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어에서 some은 그 자체가 존재양화 결정사로 사용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부정의 영역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반면에 존재양화의 능력이 없는 부정관사는 쉽게 부정이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국어에서는 ‘한’이 꼭 영어의 some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에서처럼 ‘한’이 있는 명사구가 부정이 되는 경우가 있다.

(47) 철수는 한 권도 읽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용법은 ‘한’이 단위명사 앞에 쓰이는 경우에 국한된다. 다음의 예를 보자.

(48) ??철수는 한 책도 읽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 ‘한’이 있는 특정성 명사구가 존재부정이 잘 안되는 것이 단순히 ‘한’의 원래의 의미에 기인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특정성 표지로 사용되는 ‘한’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특정성에 기인한다면, 오히려 ‘어떤’이 왜 존재부정이 가능한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어떤’은 앞에서 말했듯이 추상적인 어떤 특성을 통하여 개체를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특성을 가진 개체의 존재 자체를 꼭 가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특성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라면 더더욱이 그렇다. 실제로 ‘어떤’을 사용하는 특정성 명사구를 사용하면서 존재부정을 하는 경우, 해당 특성은 화자가 주장하는 것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이 화자 지향적이라면, 화자가 존재를 가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화자 자신이 존재를 부정한다면 자기모순과 같은 것이므로 부정이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두 특정성 표지의 차이점을 각각의 표지의 근본적인 의미에 근거하여 설명하였다. 특정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할 때, 특정성과 직결되는 특성과 그렇지 않은 특성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되며,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다른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성만을 나타내는 형태소는 찾기 어렵듯이 우리말에서도 특정성만을 위한 형태소는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한 특성들 중에서 특정성에 연유하지 않는 특성을 가려내고, 특정성에 대한 논의는 두 특정성 표지가 보이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5.2 특정성과 개체개념

두 특정성 표지의 공통된 특징 중에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믿음상황에서 사용된 특정성 명사구를 주상황에서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26a)와 (27)를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자세히 분석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양화사 등은 변수의 값으로 개체(individual)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그 개체는 해당 가능세계에 국한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다른 가능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26a)의 예를 설명할 수 있다. 이를 보기 위하여 우선 믿음 동사의 의미를 보자. 믿음 문장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 (49) ‘ α 가 p라고 믿는다’의 의미: $\{w \in W \mid \alpha$ 가 w에서 믿는 바와 일치하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p가 참이다}

조용관계를 논의하려면 변수할당함수(variable assignment)를 고려해야 하지만, 논의를 쉽게 하기 위하여 고려하지는 않는다. 이 해석규칙에 의하면, (26a) 문장의 의미는 영희가 믿는 바와 일치하는 모든 가능세계에서 영희가 읽은 논문이 한 편씩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논문은 현실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현실세계에 존재한다고 화자가 믿는다면, 굳이 영희의 믿음세계를 통하여 그 존재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세계에서 가리킬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26b)에서는 어떻게 현실세계에서 영희가 읽었다고 믿는 논문을 가리킬 수 있는가? 하나의 가능성은 특정성 명사구가 ‘믿다’ 동사보다 광영역을 가져서 그 논문이 실제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27)를 설명할 수 없다. (27)에서 영희의 믿음세계에 있는 남자는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같은 개체라고 여겨지는 여자가 있을 뿐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명사구에 의하여 도입되는 변수는 해당 세계에서의 개체만을 값으로 가져서는 안 되고, 여러 세계에 걸쳐져 있는 어떤 것을 가리켜야 한다. 위의 예에서 영희의 믿음세계에서는 남자로,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여자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 세계에 걸쳐져 존재하는 것은 개체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개체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50) 개체개념의 정의: 전체 가능세계의 집합 W의 부분집합 U와 개체들의 집합 D에 대하여, U에서 D로 가는 함수.

다시 말하면, 가능세계와 개체의 짝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단, 각 가능세계에 대하여 개체는 유일하게 하나만 주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27)의 경우를 위하여 믿음 상황 속의 남자의 경우 U는 영희의 믿음세계 뿐만 아니라 주상황을 나타내는 가능세계에 대해서도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체개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점은 개체개념에 의하여 정해지는 각각의 개체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26a)의 예를 보자. 영희의 믿음상황을 이루는 가능세계 각각에서 영희가 읽은 논문이 한 편씩 있다. 그러나 각각의 논문이 같은 논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26a)에서 중요한 것은 수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6b)에서는 영희가 어떤 특정한 논문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세계에서 읽은 논문이 물리적으로

다른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영희는 같은 논문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특정성 명사구가 값으로 가지는 개체개념은 그 안에 함수의 값으로 주어지는 개체들이 인식적인 대응체(epistemic counterpart) 이어야 한다.

특정성 명사구가 인식적 대응체인 개체들을 가리키는 개체개념을 값으로 가진다고 하는 것은 특정성 명사구의 또 하나의 특징, 즉 특정성 명사구는 소망상황에 대하여 협영역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해준다. 소망상황은 믿음상황을 기저로 하여 형성이 되는데, 특정성 명사구는 믿음상황에서 이미 존재하는 인식적 대응체에 대하여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미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하여 있기를 소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성 명사구는 소망상황을 영역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은 ‘어떤’의 경우 비선택적 결속자에는 결속이 되지만, 총칭연산자에는 결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과 비교하면, 비선택적 결속자에 결속되는 특징은 특정성 표지의 특성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둘 다 총칭연산자에 결속되지 않는 것은 특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점은 특정성 자체의 특성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총칭문에서 사용된 특정성 명사구가 총칭연산자에 결속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면, 총칭문의 의미해석을 먼저 봐야 한다. 총칭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51) ‘P는 (일반적으로) Q다’ = $GEN_x[P(x)][Q(x)]$ 의 의미: 모든 개체 $a \in D$ 에 대하여, P(a)가 참인 세계들 중에서 모든 정상적인 것이 성립하는 세계들만 모았을 때, 그 세계들에서 Q(a)가 성립한다.¹⁶

이 의미 정의를 보면, 정상적인 개체는 일부의 세계, 즉, 위에서는 P(a)가 참인 세계들의 집합에 대하여 정의된다. 만약 특정성 명사구가 도입하는 변수가 개체개념이라면, 개념적으로 특정성 명사구의 영역은 항상 총칭문에서의 x의 값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점을 좀더 자세히 논의하면, 개체개념은 어떤 주체가 다른 세계들에 있는 개체 중에서 같은 개체로 간주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즉, 어떤 주체가 아래 표에 주어진 개체개념을 가진다면, w_1 에서의 a는 w_i 에서의 d와 같은 개체로 간주되고 또한 w_j 에서의 c와 같은 개체로 간주된다.

¹⁶ 여기서 ‘P(a)가 참인 세계들’은 모든 세계에 대하여 정의되는 것으로 모든 세계의 부분집합들이 정의역을 형성하는 누적들을 만들고 총칭문의 선행절이 정의역을 형성하며, 후행절이 그 정의역에서의 정상적인 세계를 가려내는데 적용된다. 한 정의역에서의 정상적인 세계의 계산은 그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세계가 원소가 되는 다른 정의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자세히 논의하는 것은 본 논문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 Veltman (1996), Yeom (2002)를 참조.

$$(52) \text{ 개체개념 } ic = \begin{bmatrix} w_1 & \rightarrow & a \\ \dots & \rightarrow & \dots \\ w_i & \rightarrow & d \\ \dots & \rightarrow & \dots \\ w_j & \rightarrow & c \\ \dots & \rightarrow & \dots \end{bmatrix}$$

이때, d가 w_i 에서 어떤 특성 P를 가지는 정상적인 개체라고 하여도, c가 w_j 에서 P의 특성을 가지는 정상적인 개체가 될 이유는 없다. 따라서, 개체개념 ic가 P의 특성을 지니는 정상적인 개체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개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개체를 말할 수 있지만, 개체개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개체를 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특정성 명사구가 개체가 아닌 개체개념을 값으로 가지게 되면 총칭연산자에 결속이 되려고 하여도 결속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어떤’에 의하여 형성되는 특정성 명사구가 다른 결속자에 의해서는 결속이 된다 하더라도, 총칭연산자에는 결속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국어에서의 두 특정성 표지의 특성을 고찰하고 그들을 각각의 표지의 기본적인 의미와 특정성의 의미에 입각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은 아직은 개괄적인 설명에 불과하며, 어떤 분석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에 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체개념을 사용하여 특정성 명사구가 사용되는 예들의 의미가 어떻게 도출되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설명되지 않은 특성들, 즉 어떻게 특정성 명사구가 다른 연산자들보다 협영역을 가지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설명은 본 논문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정성 명사구가 개체개념을 값으로 가진다면 주상황이나 주상황에 내포된 국부상황에나 동일한 값으로부터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산자에 대하여 협영역을 가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형식적(formal)이고 기술적인(technical)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논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더욱이 여기에서 제안한 특정성 표지의 의미가 옳은 것이라면 영어나 다른 언어에서의 특정성 명사구에 대한 분석에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특정성 명사구가 비선택적 결속을 보이는 예는 없었으며, ‘어떤’이 그러한 예로 받아들여질 경우 새로운 분류가 필요하며, ‘어떤’도 포괄하는 특정성 명사구의 의미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것 또한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강명운. 2001. DP와 국어의 명사구—지시사 ‘그’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15-51.

- 남지순. 2006. 수량표현 명사구의 자동 불·한 번역을 위한 한국어 단위명사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54, 1-28.
- 윤종열. 2001. 명사구의 확대투사원리에 대한 연구. *어문학논총* 20, 357-375.
- 임홍빈. 1987. 국어의 명사구 확장규칙에 대하여. *국어학* 16, 379-430.
- 임홍빈. 1998. 국어 명사구와 조사구의 통사구조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24, 1-62.
- Enç, M. 1991. The Semantics of Specificity. *Linguistic Inquiry* 22, 1-25.
- Farkas, D. 1995. Specificity and Scope. In L. Nash & G. Tsoulas (ed.), *Actes du Premier Colloque Langues & Grammaire*. Garland, Paris, pp. 119-137.
- Geurts, Bart. 2005. Take 'five': The meaning and use of a number word. To appear in: Liliane Tasmowski and Svetlana Voegelé (eds.), *Indefiniteness and plurality*. Benjamins, Amsterdam., December.
- Heim, Irene. 1992. Presupposition Projection and the Semantics of Attitude Verbs. *Journal of Semantics* 9, 183-221.
- Higginbotham, James. 1987. Indefiniteness and Predication. In *The Representation of (In)definites*.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pp. 41-80.
- Ioup, G. 1977. Specificity and the Interpretation of Quantifier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 233-245.
- Jacob, Daniel. 2005. Adjective position, specificity, and information structure in Spanish. In Georg A. Kaiser & Elisabeth Stark Klaus von Heusinger (ed.), *Proceedings of the Workshop "Specificity and the Evolution / Emergence of Nominal Determination Systems in Romance"* Fachbereich Sprachwissenschaft der Universität Konstanz., Arbeitspapier Nr. 119. Konstanz.
- Kim, D.-B. 1992. *The Specificity/Non-specificity Distinction and Scrambling Theory*. Ph.D. thesis, University of Wisconsin at Madison.
- Kornfilt, J. 1997. Turkish. Routledge, London.
- Krifka, M. 1999. At least some determiners aren't determiners. In K. Turner (ed.), *The Semantics/Pragmatics Interface from Different Points of View*. Elsevier, Oxford, pp. 257-291.
- Lee, C. 1993. Definiteness and Specificity. In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3, pp. 325-341.
- Lee, D.-W. 2005. Syntactic and Semantic Constraints on Caseless Numeral Quantifiers. *Language Research* 44, 143-178.
- Lyons, C. 1999. *Definitenes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tee, B. 1970. Opacity, Coreference, and Pronouns. *Synthese* 21, 359-385.
- Picallo, Carme. 1994. A Mark of Specificity in Indefinite Nominals. In *Catala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 pp. 143-167.
- Russell, B. 1905. On denoting. *Mind* 14, 479-493.
- Torrego Salcedo, Esther. 1999. El complemento directo preposicional. In I. Bosque & V. Demonte (ed.),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Vol. 2. Espasa-Calpe, Madrid, pp. 1780-1805.

- Veltman, Frank. 1996. Defaults in Update Semantics.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25, 221–261.
- von Heusinger, K. 2002. Specificity and Definiteness in Sentence and Discourse Structure. *Journal of Semantics* 19, 245–274.
- Yeom, J.-I. 1998. *A Presuppositional Analysis of Specific Indefinites: Common Grounds as Structured Information States*. Garland Publishing, New York.
- Yeom, J.-I. 2002. Reasoning with Generics Based on Truth-Conditional Semantics. *Language Research* 38, 585–617.

접수 일자: 2007년 10월 10일

게재 결정: 2007년 11월 14일